다산포럼

불통(不通) 정치와 민심

권순긍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22대 총선이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겨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 참패를 끝났다. 총선 결과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야당에서 외쳤던 '정권 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분명하다. 참패의 원인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대통령은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시켜 무리하게 후보로 공천한 결과 17.15%의 압도적인 차이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 패배 후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심이 이미 떠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참패의 전주곡인 셈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9번이나 거부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모두 민생과 관련되거나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된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의 조사와 구속을 막은 적이 없었는데 대통령은 '총선을 겨냥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일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용산'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Dior)백도 일종의 뇌물수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유감 표명 대신 KBS와의 대담 방식을 통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부부간 사소한 시비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니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운동권' 출신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앙투아네트'에 비겨 사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사과했으면 지금 같은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용산'은 역시 불통이었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 '사천(私薦) 논란'을 들어 공천에서 배제했고 한 위원장의 사퇴까지 압박해 갔다. 사퇴를 거부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민방위복만 입고 미리 와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다 윤 대통령이 나타나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함으로써 확실한 '굴복'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정치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을 재현한 장면이 아닌가 싶다. '용산'의 오만은 황장무 시민사회수석의 "MBC는 들어라"는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은 '용산'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으로 출국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피시켰던 것이다.

정국을 반전시킬 '빅 카드'는 의대정원 증원이었다.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을 원하니 해볼 만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용산'의 독선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2천 명을 못 박아 놓고 절대로 숫자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니 콧대 높은 의사들이 고분고분 따르겠는가. 대미를 장식한 건 '875원 대파' 발언이었다.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마침 세일 행사를 하는 대파 한 단(보통 3~4천원대)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국민이 뒤집어졌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특히 과일과 야채 값의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는데 민생을 외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를 흔히 물과 배에 비유한다.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며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위기를 대할 때 위기가 장차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어울리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의 깨우침을 2024년 '용산'에서는 어찌 듣지 못했던가!

다산(茶山)도 벼슬아치의 자세를 말하는 글 '원목(原牧)'에서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과연 '용산'이 왜 그런 당연한 생각을 안 했을까? 다산은 말한다. "벼슬아치의 힘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위엄 있는 태도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건방지게 제 자신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자신이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NGO 칼럼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양용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대표

20여 년 전 필리핀에서 만난 한 싱글맘의 꿈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남들보다 두 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 몇 번의 한국 밖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녀가 왜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2005년에 한국에 돌아와보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이주민으로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 때문일까? 그들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어 함께 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들의 가족은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들은 우리가 겪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전체 인구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이는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이주민들은 주로 결혼 이민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난민, 북한 이탈 주민, 귀화한 외국인의 신이주민 가정,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주민 정책은 가족센터 중심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귀화를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이 되었지만 아이의 학교 안내장 해석을 못하고 SNS를 통해서 오는 정보도 해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하소연 하고 있다. 또한 이주가정의 남편들은 문화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영주권을 얻고 싶은 이주노동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한국어 공부를 위해 제도권 밖 비영리단체의 무료 교육원을 찾게 된다.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용자들은 스스로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주민과 노동자들은 이곳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일을 한다. 하지만 이주민을 위한 기관들은 평일에만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국공립보육시설도 대부분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주 4일 근무제로 바뀌는 상황에 우리의 자리를 메꿔 주는 이들은 이주민들이다. 그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도 결코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꿈을 실현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다.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이주민들도 한국에 살면서 행복과 성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이주민 수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성장하는 기회이며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광주는 이주민이 살기 원하는 도시로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기 고

희망의 교육은 신문 읽기

조미옥
전 나주 매성중 수석교사
광주일보 독자위원

봄 그리워 애태웠거늘 때가 되니 정말로 우리에게로 왔다. 예쁜 봄꽃들이 신문에 등장하는 사진을 보니 봄나들이에 대한 설렘도 커진다. 이렇듯 신문의 정보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워렌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한 "변화하는 세상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참가했던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알 수 있냐고 묻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문을 읽으면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신문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문 읽기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자원 낭비란다. 읽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걸 쓰는 사람도 있다며 설득해 보지만 천연의 맛보다는 여러가지 첨가된 맛으로 달달해진 매체에 끌리게 되어 점점 더 읽는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마저 길다며 쇼츠에 열광한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문장' 해독력이다. 문해력은 '교육받은 사람'의 기본 능력이다. 그 능력은 사고력•상상력•창조력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주 문해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력•상상력•창조력의 발휘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그런데 이런 상상력 훈련은 현행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넘어서게 하는 데 있다. 자칫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편견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오만이 형성되어 건강한 나 자신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읽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책 읽기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알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역시 활자로 된 신문 읽기이다. 스포츠면을 좋아하는 학생, 연예인 기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신문을 보다가 다른 지면도 우연하게 봄으로써 다른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이야기 나눔으로써 생각 나누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까지도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보게 된다. 읽는 것 보다는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것보다는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건드려 주기만 하여도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발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기주도적인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신문활용수업(NIE•Newspaper In Education)을 꾸준하게 해 올 수 있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고생하던 미진이는 신문을 통해 자기 관심사의 기사를 정성껏 오려서 스크랩하였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 친구들이 감동받아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니 그제사 자신만의 굴레에서 천천히 벗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감동적이었다.

은식이는 신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친구였는데 성 차별과 직업 차별에 대해 관심이 많더니만 사회에 나와서 남자 간호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미영이라는 친구는 신문을 계속 읽고 싶어 신문 봉사를 자청하였는데 경찰의 꿈을 안고 경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신감있게 이야기하니 주변 친구들이 되레 경찰 관련 기사가 있기만 하면 미영이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

일찍이 연암 박지원은 '우상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의 힘이라고 역설함으로써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 중심에는 신문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광주일보 지면에서 '길위의 김대중'이라는 기사는 학생들에게 읽고 스크랩하게 함으로써 큰 인물을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였다. 훗날 김대중 같은 큰 인물이 나오길 소망한다.

언론이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하며 걸러내기가 아닌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미담을 찾아내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응원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언론이 담아내지 못한 세심한 이야기들을 72년의 역사로 뚝심있게 지키면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였기에 학생들과 함께 광주일보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엮어 갈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社 說

세월호 10주기, 국민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2014년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이 탑승했으나 진도 조도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다. 실종자 5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 규명은 요원하다. 침몰 원인, 구조 실패 등을 규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까지 3개의 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벌도 단행돼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승무원 14명도 유기치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여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에는 신축 공사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이던 39층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급기야 2022년 10월 29일에는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159명이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목숨을 잃는 대형 재난이 잇따랐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되돌아보게 한다. 정부는 언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세월호 10주기가 우리사회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고' 비상,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살리기

총선이 끝나자마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일컫는 이른바 '3고(高)'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100달러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반격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전이 이뤄질 경우 배럴당 130달러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상승해 어제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1284원으로 1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고환율 지속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도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고물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대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초래한다. 물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동전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 양상을 보이자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잡고 있다.

물가•환율•금리는 상호 작용을 한다.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이 영향을 받기 쉬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 가계다. 3고 가운데서도 물가의 영향이 가장 큰데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 입장에선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가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원인이 '정권 심판론'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경제와 민생에서 실패한 원인이 크다. 물가 안정이 국내 노력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긴축재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3고를 잡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3652일의 기억

"내가 손을 좀 더 뻗었더라면… 내꺼 구명조끼를 줬더라면… 먼저 내보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살아준 것과 살아내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에 자리한 산정중학교 대강당.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부가 김탁환 작가의 소설집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에 실린 단편소설 '눈동자'를 원작으로 한 연극을 15일 무대에 올렸다. 대본 집필과 연출은 물론 연기, 조명, 음향 등을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했다. 연극은 출연진 모두가 나와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다.

"잘 지내고 있니? 선생님도 잘 지낸단다.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나는… 보고 싶구나… 이제 어른이 되었을 너희가."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4월 25일). 박정용 작가(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의 작품 '승화된 꽃'에 쓰여있는 손글씨 문구들이 관객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유독 '기억하겠습니다'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많이 띈다. '또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사진기자와 해외에서 참사를 뉴스로 접한 후 꾸준히 팽목항과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흔적을 사진과 그림으로 기록한 작가…. 5명의 작가들은 사진과 설치, 영상, 회화작품 등으로 '그날'의 참사를 작품화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꼬박 3652일이다. 참사 이후 열 번 째 봄이 찾아왔지만 한국사회는 그 동안 얼마나 변화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 '이태원 압사사고'(2022년)가 발생한 것을 보면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중학생들이 무대에 올린 연극 작품과 작가들의 추모전은 모두 10년 전 '그날' 참사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정영창 작가의 비디오 작품 '목격자'(4분26초) 속 문구는 커다란 울림을 남긴다.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